

# 군산대학교 10년째 등록금 동결

### 입학금도 폐지 결정 학부모 고통분담 노력 전국 대학 중 최저 수준

군산대학교(총장 나의균)가 2018학년도 학부 및 대학원 등록금을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이로써 군산대학교는 2009학년도부터 지금까지 10년간

등록금을 인하 내지 동결하게 되었다. 군산대학교는 2018학년도부터 학부 입학금을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2017학년도 대비 2018학년도 편제정원은 193명이 감축되었다. 입학금 폐지와 편제정원 축소로 인한 군산대학교의 등록금수입은 2017학년도 대비 10.4억여 원이 감소될 상황이지만, 군산대학교는 정부의 대학 등록금 안정화 기조 및 등록금 부담

완화 정책에 적극 동참함은 물론,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자 올해 고심 끝에 등록금 동결을 결정한 것이다. 이번 등록금 동결과 관련해 나 의균 총장은 "입학금 폐지와 편제정원 감소로 등록금 수입이 대폭 줄어들었지만, 학부모들과 고통을 분담한다는 측면에서 올해 등록금을 동결하게 되었다"면서 "이에 따른 재정 손실은 대학경쟁력 강화를 통

한 국책사업 수주 및 재정 효율화 등 자구노력으로 감당하겠다"고 밝혔다. 군산대학교의 학기당 등록금은 인문·사회계열이 165만9900원, 이학·체육계열 197만8900원, 예능·공학계열 212만300원으로 전국 4년제 일반대학 중 최저 수준이다. 신입생 등록기간은 2월 7일부터이고, 재학생은 2월 20일부터이다. /군산=김판곤 기자

## 예비대학생, 캠퍼스라이프 미리보기 | 전북대, 최종합격생 대상 기초교육 17일부터 내달 7일까지 무료 운영

"우리는 입학 전에 대학교 수업 들어요!" 전북대학교(총장 이남호)가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합격한 2018학년도 예비 대학생들의 기초 학업 능력을 키우고, 대학생활 적응을 돕기 위한 기초과목 선행학습 프로그램을 운영, 눈길을 끌고 있다.



전북대학교가 학생부종합전형으로 합격한 2018학년도 예비 대학생들의 기초 학업 능력을 키우고, 대학생활 적응을 돕기 위한 기초과목 선행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전북대 입학본부 입학전형실이 17일부터 2월 7일까지 BMS(브릿지형 멘토링 스쿨) 예비대학을 무료로 운영하는 것. 예비 신입생들의 신청을 받아 운영되는 이 프로그램은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수학과 화학, 영어, 물리 등 대학 학업을 위해 필요한 기초 분야 과목 수업이 진행되며, 각 분야 전문 교수진들이 참여한다. 신입생들의 기초학력 보강을 위해 매년 실시되는 이 프로그램은 예비 대학생들에게 대학생활을 미리 경험하게 하면서 기초학력까지 높여주고 있어 학생들의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특히 ACE사업 등을 통해 기초교육 강화형 학부교육 선도모델을 구축하고 있는 전북대는 이번 예비대학의

학업 성취 결과에 따라 1학년 1학기에 들어가야 하는 기초과목 수강 면제 등의 혜택도 주어진다. 여중문 전북대 입학본부장은 "BMS

예비대학은 예비 신입생들에게 입학 전 대학을 직접 경험하게 하고, 기초학력도 탄탄하게 잡는 기회를 만들면서 매년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며

"예비대학을 기반으로 신입생들이 대학에 입학해서도 잠재능력을 더욱 잘 발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민근 기자



### 초·중등 교육전문직원 임용후보자 34명 선발

전북도교육청(교육감 김승환)가 지난 16일 2018년 초·중등교육전문직원 임용후보자 선발 공개전형의 최종 합격자를 발표했다고 17일 밝혔다. 학교급별 최종 합격자는 초등 교감 2명, 초등 교사 3명, 중등 교사 29명으로 총 34명이다. 이번 2018년 초·중등 교육전문직원 공개전형에는 모두 73명이 지원, 평균 2.1:1의 경쟁률을 보였으며 작년 12월 6일 원서접수 마감 후, 서류심사를 시작으로 이달 11일까지 다단계 전형

절차를 거쳐 최종합격자를 선발했다. 2018년 초·중등 교육전문직원 임용후보자 선발 공개전형 최종합격자들은 오는 22일부터 26일까지 5일 30시간의 지역별 시·도 연수에 이어 전라남도교육연수원에서 주관하는 남부권 공동 직무연수에 31일부터 2월 9일까지 참여하게 된다. 이를 통해 기획능력 향상 및 교육정책의 포괄적인 이해와 교육청간 상호교류 등 소통의 기회를 갖게 될 예정이다. /김민근 기자



### 전북의 딸 김아랑 평창올림픽 출전

평창 동계올림픽이 20여일 앞으로 다가오는 가운데 전북 출신 출전 선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전라북도교육청은 17일 평창 동계올림픽 국가대표 중 쇼트트랙 김아랑(한국체육대 재학) 선수가 전주 제일고를 졸업했다며 도민들의 관심을 부탁했다. /김민근 기자

2014년 제22회 소치 동계올림픽 여자 쇼트트랙 국가대표로 출전한데 이어 두 번째 올림픽 출전인 김아랑 선수는 1995년생으로 전주제일고를 졸업했으며 초등학생 때부터 선수생활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전주제일고 재학 중에는 전북 최초로 고등학생 국가대표로 선발됐다. 김승환 교육감은 "김아랑 선수는 전북의 딸"이라며 "이번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좋은 성적을 이루기를 전북도민들께서 응원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민근 기자

### "교육적폐 청산, 새로운 세상 열 것"

황호진 전 부교육감, 전북교육감선거 출마 선언 그는 "지금까지 전북교육은 교육행정의 기본 틀을 갖추기는 했지만 구체적인 교육성과에 대해 도민들의 우려는 커져만 가고 있다"며 "도민을 현혹하는 일방이 없는 미사여구가 아니라, 교육기본에 충실한 새로운 비전과 혁신이 필요한 때이다"고 강조했다. /뉴스시스

이러 "학교를 학생들에게 돌려주고 교육은 정답을 맞히는 교육에서 좋은 질문을 하는 교육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새로운 직업이나 직종을 만들어가는 시대에도 대비해야 하며 사회 각 분야의 인재와 국가 지도자를 양성해야 한다"고 포부를 밝혔다. 또 "학생인권과 교권은 함께 가야하며 학교폭력을 원천적으로 예방하면서 사안이 발생할 경우 학교현장의

부담을 최소화해야 한다"며 "진정한 학교자치의 통해 학교교육력을 극대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최근 출마 선언을 공식화한 김승환 현 전북도교육감을 겨냥(?)한 발언도 했다. 그는 "교육감은 전 도민의 교육감이며 일부 도민이 아닌 모든 도민과 소통해야 한다"며 "그 동안 계속되어온 불통행정은 청산되어야 하고 전북교육의 수장을 교수가 계속 맡으면서 전북교육은 시행착오와 퇴보를 거듭해 왔다"고 꼬집었다. /뉴스시스